

# ‘SRF 갈등’ 민관 거버넌스에 달렸다

법원 “나주시 핵심쟁점 연료사용 승인 결정해야”  
거버넌스 운영 지속... ‘손실보존 비용’ 점점 주목

나주 혁신도시 고행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핵심쟁점인 ‘연료사용 승인’을 두고 법원이 나주시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판단을 내려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나주시가 난방공사로부터 연료(SRF)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서도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료사용 승인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난방공사가 제기한 연료사용 승인 청구를 기각한 뒤 “나주시가 공익적인 문제점 등을 판단해 SRF 사용 승인을 수리 또는 거부하라”고 판시했다.

SRF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2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핵심쟁점인 ‘연료사용 승인’과 관련해 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고, 나주시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주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나주SRF 가동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나주시에 ‘연료 사용을 수리

(승인)’ 하라고 판결했다면 발전소 가동을 막고 있는 유일한 족쇄가 풀릴 수밖에 없고, 이 시설의 합법적인 가동·운영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연료사용 승인 여부 청구를 기각, 발전소 가동 유무를 놓고 수개월 동안 협의를 이어 오고 있는 거버넌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는 범시민대책위·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개월여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고 협의를 거듭해 환경영향평가와 그 결과를 전제해 주민투표를 통해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사용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 100% 전환 또는 SRF로 결정하

는 안도 포함됐다.

이 안은 그러나 수면 밑에 잠겨있던 ‘손실보존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원 대의 SRF시설 매몰비용과 100% LNG로 연료전환시 발생하는 연간 240억원대의 손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에 제12차 회의를 열고, 각 주체들이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전남도에 제기한 SRF 사용신고수리 의무이행 등에 대한 행정심판도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호 합의 처리’를 이유로 지난 6월 심리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정근산 기자

# 나주 전체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망 구축’

시민·관광객 모바일 서비스...스마트도시 ‘성큼’

나주시가 시내버스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Wi-Fi)’를 맘껏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과 관광객의 모바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전체 시내버스 150대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망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했다.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남도, (주)KT와 협약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총 사업비 2억8,400만원을 투입했다.

기존 관공서와 공공시설, 관광지 위주로 제공했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까지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건설을 앞당기게 됐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하는 방법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휴대폰에서 ‘설정-와이파이-연결’ 후, ‘PublicWiFi@Bus-Free’ 식별자(SSID)를 확인·접속하면 된다.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PublicWiFi@Bus-Secure’에 접속하면 된다.

나주시는 시내버스에 앞서 20개 읍·면



나주 시내버스에 부착된 와이파이 스틱커. /나주시 제공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 36곳, 금성관·영성테마파크 등 관광지 29곳, 다중이용시설 2곳, 버스정류장 48곳 등 총 115곳에서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체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절감과 모바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첨단 기술 보급과 확산에 힘써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성 홍길동테마파크에 설치된 바닥분수대에서 어린이가 뛰어놀고 있다. /장성군 제공

#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무더위 날려요”

4D 영상관·국궁장·바닥분수 등 체험거리 풍성

장성군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떠나기 좋은 여행지로 홍길동 테마파크를 추천했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홍길동 테마파크는 무료 시설인 홍길동 생가와 산재 체험장, 전시관 등으로 구성됐다. 유료 시설로

여름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헤아리고 싶다면 청소년 야영장을 이용하면 된다.

데크 이용료 1만5,000원에 1인당 2,000원씩 추가 부담하면 된다. 야영이 번거롭다면 정백한옥이나 오토캠핑장 내 캐러밴이 있다.

한편, 장성군은 조선실록과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등에 언급된 기록을 토대로 홍길동이 1446년 경 황룡면 아치실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증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 담양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담양군이 깨끗한 수도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2023년까지 246

억원을 투입해 담양읍 등 급수지역의 노후 상수관망 29.7km를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18개소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중이며 상수도 시설물조사와 관로매설 현황을 전산화하고 담양군을 18개 블록으로 나눠 노후관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수율이 현재 64.5%에서 85%로 향상돼 연간 102만t의 수도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블록당 유량계를 통해 누수구역을 특정할 수 있어 상수도 사고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담양=장동원 기자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유물 추가 공개

장태·서첩·장비 등 25점...대형 태극기도 설치

장흥군은 8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당시 제작된 유물 25점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제작됐던 관련 유물 25점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도류 3점, 서지류 15점, 장비류 7점을 전시해 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치열했던 당시 봉기 모습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유물 공개와 함께 높이 30m의 대형 국기계양대를 설치하고 가로 7m, 세로 5m 크기의 태극기를 게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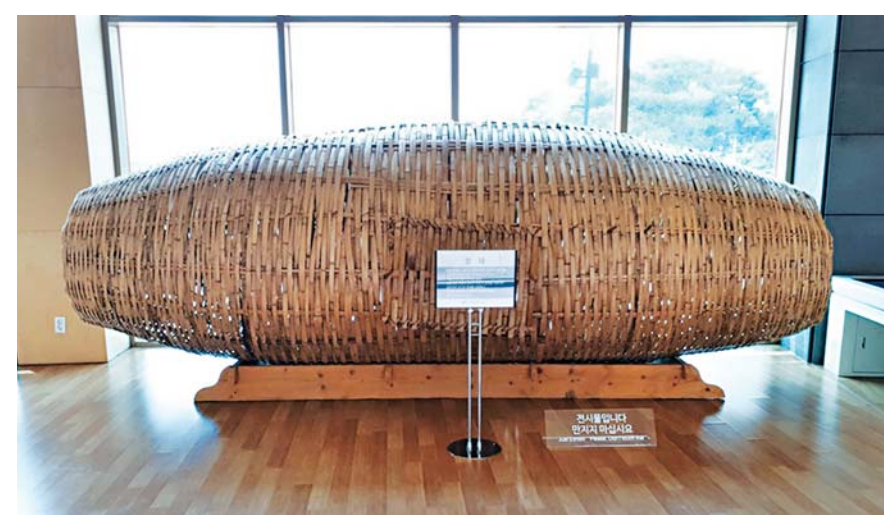
또 장흥 출신 이방언 대접주가 고안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성 황룡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한 ‘장태’도 실제 크기로 제작됐다. 장태는 원래 대나무로 만든 닭장이었으나 볏짚을 넣어 적군을 향해 진격할 때 방탄막으로 사용됐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위치하고 있는 장흥읍 남외리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격전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09년 5월 국가지정사적지로 지정됐다.

기념관은 영상실, 기획전시실, 체험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연간 약 1만2,000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한다.

군 관계자는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통해 애국심 고취는 물론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흥 출신 이방언 대접주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방탄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장태’가 실제 크기로 제작됐다. /장흥군 제공

# 클릭! 고향 소식



## 한전 홍성규 처장, 한다리목 마을 명예이장 위촉

나주시남평읍은대교리마을회관에서 홍성규 명예이장은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실천적 방안을 함께 나누고 소통해 농가소득 창출과 같은 성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 담양 문해교육사 2급 양성과정 개설

담양군은 최근 문화회관에서 학습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해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양성과정은 문해교사 교수활동 전반에 관한 전문성 심화교육으로 교수 학습 전략 교육, 문해교육 기관 탐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문해교사들의 현장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 함평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함평군보건소는 최근 건강관리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서비스 등 방문건강관리 활동을 펼쳤다.

보건소 직원들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 노인가구 등을 방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생활지침 및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경로당을 순회하며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상황별 대처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함평=윤예중 기자